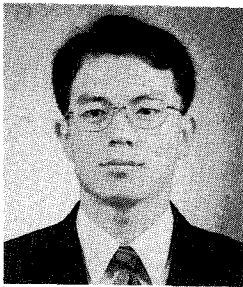


가금인플루엔자와의 전쟁 현장에서



김 영 우
(본회 음성지부 총무)

누구에게서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을, 바닥을 기면서 헤쳐오던 양계인들에게 연말 추위 속에 덮쳐온 가금 인플루엔자는 대형 폭탄이었다. 어렵게 살처분이 끝나고 보니 분통터지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우리 모두에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보려 한다.

1. 정부의 양계산업정책과 방역

상황 발생 이 후 군내 읍·면 사무소의 산업계 축산담당 공무원에게 그동안 양계분야에 사업배정이 전무하고 전화로나마 사업 참여의 기회마저 주지 않았음에 항의하였다. 양계산업이 축산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소가 1순위, 돼지가 2순위, 닭이 3순위여서 양계농가에는 사업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읍·면에서 보관 중이던 소독약도 구제역용이기 때문에 AI 발생에도 농가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양계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의 한 단면이다.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사고가 AI를 불렀고 뒤늦게 차단방역에 허둥대며 막대한 국고를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계산업뿐 아니라 질병을 공유하는 모든 가금류(닭, 오리, 메추리, 기러기)에 대해 경쟁력을 갖도록 시설의 현대화 등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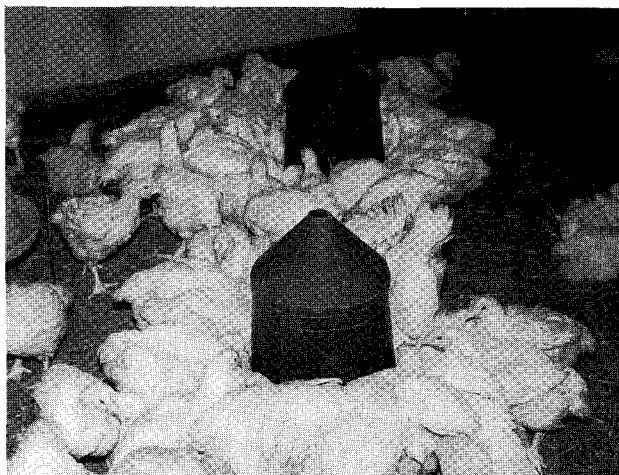
양계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ND에 대한 살처분 보상 제도를 요구하여왔음에도 정부가 외면하였던 것이 가금류에서 질병을 숨기게되고 더 큰 화를 부른 결과가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ND, AI 등 법정 제 1 종 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오리, 메추리, 기러기, 타조 등 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상황대처에 대한 비판

음성군청은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서 외부 지원이 전혀 없이 군청직원과 농업기술센터, 공동방역단, 축협 직원까지 9명이 동원되어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퇴근은 커녕 예방주사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 위장약을 먹으면서 주야로 고군분투(孤軍奮鬪)하였다. 그럼에도 외부에서는 연일 초동대처의 미흡과 상황의 조기 진압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여 현장요원들의 사기를 꺾어버렸다. 비판을 받아야한다면 그들이 아니라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농림부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군청 상황실의 인원배치와 역할분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상황실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휘해야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상급 기관이라는 이유로 상위직급이라는 이유로 군청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섭함으로써 상황통제에 방해만 되었을 뿐이다. 상황실에서는 농림부, 국립보건원, 수의과학검역원, 도청, 군부대 등이 직급이나 기관의 체면을 떠나 현지 축산계장의 지휘를 받아 기술적 조언과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상황의 빠른 종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인력부족 문제는 도청이 나서서 다른 시·군의 축산계 직원을 한 명씩 파견하여 전문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시·군의 축산계 직원



의 파견은 그들에게 현장 교육이 될 것이며, 차후 동일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의 조달 운용과 예산의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상황실장의 지휘하에 장비는 건설과가 조달하고 예산의 집행과 성금의 접수 등은 예산계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살처분 보상 문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외국의 예에 의하면 AI발생 후 상황종료 선언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육계에서는 2~3회전을 하는 기간이다. 육계에서 살처분 보상의 기준은 정상적인 출하시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 이상의 보상과 입식자금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또한 경계지역(반경 3km~10km까지)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정부가 전량 생산비 이상의 구매와 살처분에 준하는 입식 지원이 필요하다. 이동제한 지역 외(반경 10km이상)에서도 방역 지원과 함께 입추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4. 계분처리 문제

계분처리에 대한 대책은 살처분과 병행되어야 함에도 전혀 도외시되었다. 살처분 후 계분처리가 유아무야될 것을 우려한 양계협회 음성지부는 살처분 과정에서 계분처리에 대한 정확하고도 안전한 지침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되어졌다.

농림부는 2003년 12월 26일 5대 일간지 1면에 '오염원은 모두 살처분·매물 조치 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계분 1g에는 닭·100만수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계분도 광고에서처럼 전량 매물 조치해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살처분, 매물에도 어려움이 컸던 현실을 감안하면 매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엔 양계협회 음성지부는 대안을 제시하고 답을 요구하였다.

계분처리장이 있는 농가는 계분처리장으로 계분을 빼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계분처리장이 없으므로 양계장내에서 하우스를 지어 계분을 옮겨서 완전 발효처리하고 계사내부와 주변에 대해 완전한 소독을 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상황종료로 가기를 원하였다. 우리의 요구가 있는 후 농림부는 오염된 계분을 방역담당이 처리방안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노 담당자에게 업무를 배정하여 심히 부적절한 지침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닭·오리 분변처리수칙 최종안에 따르면 ①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에는 '육계·오리 분변은 축사내에서 생석회 도포·소독 실시, 비닐 피복 및 원치커텐' 등으로 밀봉 후 보관 ② 경계지역(3~10km)의 분변을 '농장밖 반출희망농가는 시·군에 반출허용을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이 반출여부를 결

정', 해당 시·군은 '분변수송차량을 지정하고 소독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치침대로라면 농가는 할 일이 없고 군청에서 전부 처리해야하는데 불가능한 방법이다. ①은 자연란 계사나 오리장의 경우 '생석회 도포·소독 실시, 비닐피복'이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고 '원치커텐 밀봉' 육계사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개방 계사인 자연란과 오리장 등에서는 문제가 크다. ②는 그동안 미루어있던 산적한 고유업무로 인한 방역관 인력 부족과 분변수송차량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문제가 이리함에도 농림부는 우리의 대안에 대해 '계사내의 계분처리 문제는 바이러스의 오염문제 등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 시안으로 처리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식으로 거부하였다. 황당한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004년 1월 2일 오후 삼성면 사무소에서 살처분 농가를 소집하여 방역 교육을 하였는데, "연료를 제공할 테니 열풍기를 가동시켜서 계사내 온도를 고온으로 바이러스를 살멸하라" 하였다. 이는 살처분 현장의 대부분이 개방축사인 자연란과 오리장인 점을 감안하면 강아지도 웃을 노릇이다.

5. 농림부, 언론, 대한양계협회의 상황인식에 대하여

농림부는 상황발생과 동시에 고병원성에 준하는 차단방역과 가금부산물외의 철저한 이동제한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동제한 지역 밖에는 협회 등을 통한 방역 독려가 있어야 했다. 그런 다음 정밀검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하고 방역상 언론의 취재를 공동취재로 제한했어야 했다.

이동 제한 지역의 가금류의 반출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국의 모든 닭 값의 폭락은 농림부의 현명치 못한 보도자료와 언론의 상업적 자극적 보도에 따른 공포분위기 조성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정부와 언론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양계협회도 10km 범위에 대한 경솔한 살처분 동의와 단견으로 실패한 수매대책에 대해 책임을 동감해야 할 것이다.

6. 마무리하며

상황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일각에서는 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한 군청 직원들에 대한 정계의 소리도 들려온다. 우리 음성 지역의 양계인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사태에 비협조적이었던 농림부와 도청 축산과

등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바이다. 이제 당국자들은 모든 사안에서 책상머리 행정은 버리고 발로 현장을 뛰는 행정을 해야 한다. 눈을 돌려 현장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책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농림부의 상황대처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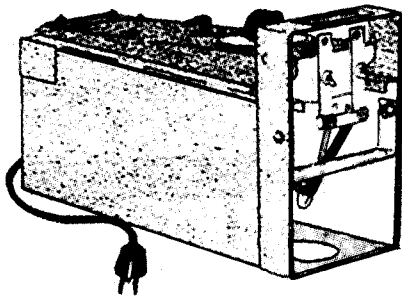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한 2004년 새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기에 덕담 한마디 해보겠다. “오륙도(56세)를 떠난 사오정(45세)이 삼팔선(38세)을 넘으니 정변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갑신년 새해에는 4월 총선에서 갑신정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청년 실업의 극복과 함께 국민 모두가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처럼 천의를 입고 이룩할(25세)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양계

※이 의견은 본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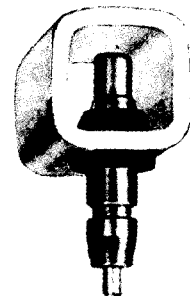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사무실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31-27
전화 : (02)461-7887(주·야)